불교음악 전문 연구·진흥 본격화

한국불교음악학회 〈불교음악문화〉 창간호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학 연구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는 의외로 불교음악이다. 학계에 발표되는 논문이 있지만 대부분 불교계가 아닌 음악 관련 학회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불교학술지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젠 불교학계도 불교음악 전문 연구 학회와 관련 학술지를 갖게 돼 향후 전문 연구자 발굴과 진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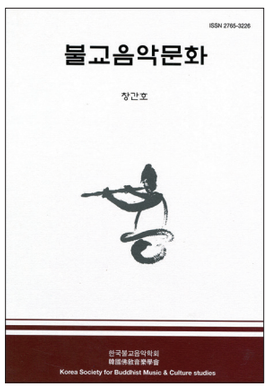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지난해 7월 13일 설립된 한국불교음악학회에서 3월 1일 자체 학술지 〈불교음악문화〉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한국불교음악학회는 불교음악원이 중심이 돼 설립됐다. 종교 활동의 장엄한 의식음악으로써 뿐만 아니라 관대한 포용력을 발휘하는 포교음악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규명하는 데 학회 설립의 목적을 뒀다. 초대 학회장은 '비목' 작사가로 잘 알려진 한명희 前 국립국악원장이 맡았다.

학회는 설립 후 논의를 거쳐 정기 학회지 〈불교음악문화〉 발간을 비롯해 △학술대회 개최 △불교음악학 아카데미 운영 △국내외 관계기관·단체 교류 △불교음악학 연구자 포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된 〈불교음악문화〉는 한국불교음악학회의 활동을 대중과 전문 연구자에게 알리는 첫 행보였다.

한명희 학회장은 창간호 권두언 '〈불교음악문화〉 창간을 고무(鼓舞)함'을 통해 "〈불교음악문화〉 발간이 한국불교음악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학회장은 "불가사의한 음악의 감화력은 종교 세계에도 여일하다. 서양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롯한 종교음악이 기독교를 홍성시켰듯이 동양에서는 범패라는 종교음악이 불교를 융흥시켰다"면서 "종교와 음악은 이이일(二而一)의 일심동체(一心同體)이자 불가분의 필연적 연분"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음악 전문 연구 목적
불교음악원서 학회 창립

창간호엔 불교음악원부터
전문 음악연구 논문 수록
년 2회 학술지 발간 계획

이어 "불교음악원 창설과 한국 유일 불교음악 전문 학술지 〈불교음악문화〉가 고고성(呱呱聲)을 울린 것은 한국불교의 획기적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낭보"라면서 "오늘의 고고성이 한국불교와 한국예술음악을 세계 만방에 선양하는 팡파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창간호의 특별기고문에서 "현재 불교음악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님들의 염불 교육은 구구전승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과학·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불교음악원에 그동안 바라던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설립됐다. 앞으로 불교음악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만큼 조계종 종단 주요 지도자 스님들의 관심도 높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창간 격려사에서 "불교음악의 역사와 실체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것은 불교음악인들의 오랜 아쉬움이었다"면서 "한국불교음악회의 설립은 불교음악 발전과 변화의 큰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총무원장 재직 당시 불교음악원을 설립한 장본인인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창간 격려사에서 대중 포교에 있어 불교음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소리이자 설법 자체다. 불교의식이 불교음악이고, 불교음악이 불교의식"이라면서 "불교음악원은 한국불교음악학회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불자들의 생활음악으로 불교음악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한결 같이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음악문화〉 창간호에는 불교음악 연구 현황을 비롯해 불교음악사, 범패·화청 등 전문 불교음악연구 논문이 실렸다.

경주 유적 조사 DB 자료집 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5천여 유적자료 목록화

신라 고도(古都) 경주의 각종 고고학적 조사 자료를 망라한 정책 자료집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경주에서 진행됐던 각종 고고학적 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분석한 정책 자료집 〈경주지역 유적조사 자료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연구〉를 발간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경주는 신라의 도읍으로 일찍부터 유적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돼 관련 자료의 취합이 쉽지 않아 유적 조사의 전체적인 추이와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에서 이뤄졌던 각종 유적조사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체계적인 조사·연구 방향을 가늠하고자 정책연구를 기획했다.

이번 책자는 총 5657건의 고고 유적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목록화하여 경주지역에서 이뤄진 유적조사 정보를 모두 담았다. 또한, 파편화된 경주의 유적조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편집했다.

1권에서는 경주지역 유적조사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을 토대로 △경주시 일반현황 △경주시 유적조사 자료 분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시대별·유적성격별·조사사유별·발굴면적별 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주에서 이뤄진 유적조사의 현황과 추이를 살폈다.

2권에서는 읍·면·동 찾아보기를 통해 자료의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주시 유적조사 자료 목록에는 표본·참관·시굴·발굴조사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록했다. 각 유적조사 자료에 대한 관련 책자(보고서 등) 정보도 함께 표기해 전문적인 정보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발간된 자료집은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경제학 접점을 논하다

동국대 세불연 학술대회

경제학과 불교학의 접점을 살피고, 불교경제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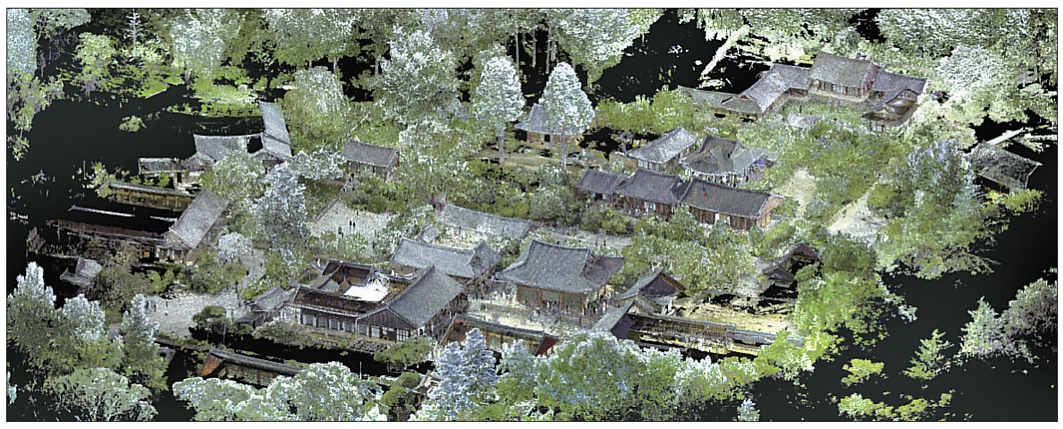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20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학과 경제학의 만남과 대화'를 주제로 제19회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불교의 구조와 불교학의 체계'를, 이상호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경제의 구조와 경제학의 체계'를, 박만섭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본주의 경제학의 특징과 한계'를,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사회주의 경제학의 특징과 한계'를,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가 '불교경제학의 지형과 방법'을 각각 발표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는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는 경제학과 우리의 심층 마음을 구명하고 지혜 행법을 제시하는 불교학의 대화를 통해 접점과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체계인 불교경제학 정립을 시도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보·보물 3차원 DB 구축된다

문화재청, 구축 사업 진행
全지정·등록문화재 대상
2025년까지 713억원 투입
라이다 스캐닝 등 활용 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를 3차원 지상 라이다(LiDAR)로 200억개 위치 데이터를 취득한 뒤, 3mm이하 점밀도로 디지털 원형을 기록한 모습.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들을 3차원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713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모든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약 4000여 건(종이류 등 제외)에 대한 3차원(이하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문화유산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지상 및 항공에서 광대역 및 정밀 라이다 스캐닝(LiDAR), 사진측량(Photogrammetry), 초분광 및 열화상 광학센서 등 비접촉 디지털 데이터 획득방식을 이용해 문화재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를 훼손 없이 정확한 크기와 형태, 색상, 질감 등을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정밀 측정이 가능하고 기가픽셀급 해상도(초고해상도)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DB화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쉽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3차원 DB구축 사업은 문화재청 직접 진행하며,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경상북도, 대구, 경상남도, 부산, 울산, 제주지역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1460건에 대한 3차원 DB화가 이뤄진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2025년에는 서울과 경기·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사업의 성과물은 지진, 태풍, 산불, 방화 등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보존된다"면서 "현실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정확하게 디지털로 재현할 수 있어 실감콘텐츠 제작, 비대면 교육·관광, 웹툰·게임·영화·전시·디자인 등 문화산업 원천 콘텐츠 자원으로 개방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문화재청은 3차원 DB 구축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DNA(Data, Network,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입체감 있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복원·주변 환경 정비·재난 방재·토지규제 민원처리 등 과학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고, 디지털 제작 콘텐츠에 부가가치를 높여 거래하는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과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미래 문화유산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원 DB 구축 1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수행 기관을 이달부터 공모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